

목차
 유목시 건조육성, 생육촉진, 질병예방
 기촉용수 급여, 소항물중독
 토양관주시 감자의 연작장애해소, 유출관중독
 염당알로시 식생촉진, 육질향상, 저항성 증대
 한국농수산대학
 2005년 4월 11일

친환경농업 농정

유기질비료 보조확대

지난 2월 29일 열린 2005년 농산업 포럼에서 농림부 정황근 친환경농업정책 과장은 2005년 농기자재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중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의결
 · 지원규모: '04년 60만톤, 210억원(→)'05년 70만톤 245억원(→)'06년 100만톤, 400억원
 · 추진방향: 유기질비료 보조에 대한 단가 및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07년부터는 톤당 5만원 수준으로 확대지원.

전남, 친환경농업 구축 올해 112억 투입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112억원을 투입, 친환경 쌀 생산단지 5천800ha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히고, 순천시 등 19개 시군에 100ha에서 800ha까지 총 5천800ha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키로 하고 각 지역별로 친환경농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참여한 농가에는 10a(300평)당 20만원씩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진청, 천적이용 해충방제 확대

농진청청은 지난달 28일 농약 걱정 없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연환경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처음으로 천적을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이용한 이후 첫해 3ha에서 지난해까지 396ha로 보급이 확대됐다. 농진청은 천적보급 사업과 아울러 성체로몬, 미생물 농약, 끈끈이 트랩, 해충채집기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방제사업을 확대보급키로 했다.

고창, 경관농업특구 지정 개발

고창경관농업특구는 친환경농업에 따른 관련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선택과 집중개발로, 더욱이 고창군은 친환경농업농업단지 조성, 향후 친환경농업단지를 확대해 나가고 벼농사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 도입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연관사업으로 청정농산물데마과과 조성사업, 전일플라자 개념을 도입하고 판마케트와 휴게음식점, 청정농산물가공시설 및 체험공방 등 학원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농업의 중심센터 조성한다.

무안, 학교급식 식재료비 확대

무안군은 올해 관내 72개 학교에 4억8570만8000원의 학교 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내 분협회 무안군협의회 등에서 생산하는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비율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군은 최근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지원 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07년까지 100%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 식재료로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조용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목차

1. 서론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의의나, 친환경농산물 분류
3.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민간으로 이관
4. 결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유기농산물(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시장에서 2/3 이상이 유기농산물이며, 유기농산물의 대부분이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거나 원료농산물을 수입해 가공한 제품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도 없으며, 현재 재배농법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이나 인증량을 늘리는데 급급한 면이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확대되기 위해서는 4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유기재배와 저투입재배(무농약, 저농약)로 변경하여 구분해 단순화하고, 유기재배와 저투입재배 농산물을 소비자가 혼동이 없도록 전혀 다른 도형의 인증마크를 지정하여 표시토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민간으로 이관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인증업무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전담하는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제한된 인력, 정부중심 인증 체계와 저농약·무농약 위

주의 인증 업무로는 급증하고 있는 농가나 조직을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일부에서는 현재 인증업무 수행하기에도 한계가 이르렀다. 유기재배와 저투입재배(무농약·저농약)로 친환경농산물을 2분화하고, 인증업무 민간으로 완전히 이관하여 정부와 민간 인증기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인증업무에 대한 인증신청에서부터 생산지도 등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민간인증기관과 인증농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종유동 인증 등 관련 사후관리 역할 수행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간인증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노력들은 미흡하였기에 업무 이관을 위한 법적 시한 명시

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유통업자에 대한 새로운 인증 제도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명확한 유통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유기농산물 인증

유기농산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와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유기농산물은 식품위생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다루고 있다. 식약청고시 식품등의표시기준에 국내산품의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정제수와 열화나트륨을 제외한 95% 이상을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의 기준 중 유기

농산물을 보전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 우리의 진정한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유기농업은 일반농업에 비해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영농을 함으로써 토양의 침식, 토양 내 생체제 파괴, 토양 및 수질의 오염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또한 농약 잔류량이나 화학비료의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걱정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덜 수 있고, 국제 무역에서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기농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이 더디게 발전하고 자리잡기 전에 유기농산물 시장에 외국산이 몰릴 듯 우려되고 있어 시급히 대비책이 세워야 할 것이다. 외국의 유기농산물에 대해 국내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제도상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수정·보완하여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신도농이 국내 유기농업의 활성화와 함께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유기·저투입재배로 친환경농산물을 2분화하고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완전히 이관하여 정부와 민간인증기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등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라.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도입

미국 등 유기농업 선진국에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을 유통과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장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을뿐더러 인증수수료 등으로 인증기관의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유통도 복잡해지고 있어 인증농산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인증제

농민산물 및 유기농산물의 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유기농업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원료농산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하지 않고, 유기농산물을 원료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청 고시" 규정에 적합하지의 여부는 당해 제품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

특허 제 0286579 호 ※영업직원 및 대리점 모집

비,상후,꽃,잔디,과수,근채류 등 기비 및 후비로 가능

★기능성 부산물비료 출시

증수효과 · 병충해방지효과 탁월

순수한 부산물 비료로 토비비료는 산업자원부가 품질을 인증한 1등급 비료입니다. (GR M 9001-2000)

토비비료는 산업자원부가 품질을 인증한 1등급 비료입니다. (GR M 9001-2000)

경기도 광주군 신흔면 건림리 426
 전화: 031-797-0808~9
 팩스: 031-797-0008

유기재배 전용비료 출시

천연살충제 출시

진진

▶용 량: 200ml / 1병
 ▶사용방법: 물 10말 + 진진1병
 ▶효 과: 진딧물, 벼멸개, 노린재류, 딱정벌레, 벼싹파리

▶특 징
 1. 독성이 없으므로 작물의 앞뒤면 골고루 문도록 살포
 2. 차, 향장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원료로 사용
 3. 꿀벌, 어류 등에는 사용 금함
 4. 알카리성 물질 및 동제와는 사용 금함
 5. 개화 시는 어떤 작용에도 사용을 절대 금함

웅진

▶용 량: 200ml / 1병
 ▶사용방법: 물 10말 + 웅진 1병
 ▶효 과: 응애류, 진딧물류, 벼싹파리(유충)

▶특 징
 1. 밀구술나무 등 3종의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 원료 사용
 2. 독성이 없으므로 앞뒤면 골고루 문도록 살포함
 3. 꿀벌, 어류, 가미류 등의 유용곤충에 안전
 4. 대부분의 농약과 혼용은 가능하며, 영양제와 혼용 시 예비시후 사용
 5. 알카리성 물질 및 동제와 혼용 금함
 6. 개화 시는 어떤 작용에도 사용을 절대 금함

수호신

▶용 량: 200ml / 1병
 ▶사용방법: 물 10말 + 수호신 1병
 ▶효 과: 배추줄나방,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노린재, 잎굴파리

▶특 징
 1. 고삼 등의 약용식물 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
 2. 독성이 없으므로 앞 뒤면이 골고루 문도록 살포함
 3. 진딧물이 발생하지 않음
 4. 알카리성 물질, 동제와 혼용을 금함
 5. 개화기 시 어떤 작용에도 절대 사용 금함

문의·주문처: 한국유기농자재센터
 ☎ 02-406-4462

와병중인 토양!

토양의 산성화로 버지 않는 낙엽!
 유기농 약제에서도 검증되는 진류농약·세균!
 이런 환경에서 유기농이 될까요?
 작물을 심기전이나 수확후에 토양소독을 한다면, 토양이 살아야 작물도 건강합니다!
 화학물질(농약)의 과다사용과 공해로 오염되고 황폐해지는 토양!
 농약에 대한 내성으로 강해진 해충과 병균!
 화염(불꽃)에는 죽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공해의 화염(불꽃)을 이용하여 토양소독과 함께 제초/살균/살충!

유기농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필수품

• 1,100°C의 화염을 순간방사 / 토양소독과 살균, 살충 / 살아있는 잡초 소각제거 / 가동성 양호

제 초	살균소독
매우구제	토양소독

- 다년생작물(인삼, 약초 등)의 고령, 보존연계 소각
- 이랑사이 최비물, 영아구 잡초 제거
- 진딧물, 응애 등 해충 발생작물의 무병 소각·소독
- 고령의 소각, 잡초 씨앗의 소각
- 채소밭, 화단 등의 주변에 살충이나 잡초 소각
- 축사의 살균 및 살충, 해충의 유충박멸
- 쓰레기 소각
- 과수의 잡초 소각 제거, 골판이 소독, 토양 소독
- 가축의 털소각 청소, 주변의 살균 소독
- 양봉 농가의 주변 해충 구제
- 예초기 사용후 잔물의 제초·소각

경기도 여천시 모가면 신갈리 146
 전화: (031)834-7111, 7121 / 팩스: (031)834-7122

원진산업투자회사